

# 'AI 모빌리티 전환' 국가전략 되어야



아성욱  
스마트카 'TALK'

제4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중기 행정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교통체계, 국민 이동권을 재설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주행, UAM, 전기차 안전, 배터리 산업 육성, 자동차 분야 규제개선, 소비자 보호 확보를 위한 방향은 맞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머물지 않고 기술·제도·운영·인프라를 통합한 실행력 있는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AI의 발전으로 모빌리티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AI의 확산은 자율주행을 규칙 기반에서 학습형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자동차정책 역시 '관리' 중심에서 AI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을 실증 확대에서 운영체계 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용화의 핵심은 실증 규모가 아니라

원격운영, 통합관제, 플랫폼, 책임·보험체계, 시민 수용성 등이다. 따라서 무사고 주행거리, 원격개입 빈도, 서비스 전환율 등 운영성과 지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차량 중심을 넘어 도시 단위 AI 모빌리티 전략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은 차량, 인프라, 데이터, 관제, 서비스가 결합된 시스템이므로, 자동차정책도 도시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전기차 정책은 제작 단계에서 운행·정비·거래까지 전주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비 인프라, 인력 교육, 배터리 상태 공개, 이력관리 등 실질적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후배터리 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책임체계 정립이 우선이다. 상태평가, 이력추적, 사고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사회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호는 규제 강화보다 정보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사고·정비·배터리·소프트웨어 이력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규제개선도 건수가 아니라 승인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 향상 등 효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계획은 중앙정부의 선언적 계획이 아닌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차등형 정책과 지역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결국 제4차 계획은 자동차 관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자율주행과 전동화, 안전과 소비자 보호, 지역 실행력과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국가전략 문서가 되어야 한다.

미래차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 산업이 되지 않는다. 제도적 신뢰, 인프라의 수용력, 운영체계의 완성도,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산업과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다.

기술-제도-운영-도시 구현이 하나의 구조로 맞물리는 정교한 설계와 안전성,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행 전략이다. 제4차 계획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 자동차정책은 미래차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 이동체계 전환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대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 5월,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 계절



이지청하  
(유통&라이프부)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이 공개된다. 20년 전 영화지만 대중은 여전히 편집장 '미란다'의 카리스마와 비서 '앤디'의 화려한 변신을 추억한다. 유명 패션잡지 런웨이를 배경으로 치열한 커리어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 속에서 정작 오늘날 관객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또 다른 비서 '에밀리'의 얼굴이다.

에밀리는 파리 패션위크를 목표로 버티고 있지만 패션에는 관심 없었던 굴러들어온 돌 앤디가 그 기회를 빠르게 차지한다. 에밀리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해'라고 외치며 조직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데 앤디는

조직을 수단으로 여긴다. 결국 앤디는 런웨이를 떠나며 '미란다 비서 출신'이라는 명성을 활용해 원하는 곳으로 점프한다. 이때 영화 제목은 현실의 문장으로 다시 읽힌다. 악마 '가' 프라다를 입는다.

현실도 종종 그렇게 흘러간다. 앤디의 서사가 영리한 '이직 성공 사례'가 된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에밀리들은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격하되곤 한다.

앤디는 파리 출장을 가로챈 미안함을 명품 옷 몇 벌로 표현하고 에밀리의 입꼬리가 씩씩해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에밀리가 원하는 것은 물질보다 자신이 쏟은 열정에 대한 인정과 성취였을 테지만, 노력과 결과가 어긋난 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본질적인 갈등을 소모품적 보상으로 봉합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5월에는 각종 기념일이 있어 연휴가 이

어지는 동시에, 휴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근로 또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비대칭성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 누군가는 일해야 하며 남들이 쉬는 때 두 배로 뛰어야 하는 직군도 존재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장 사수는 기회를 쫓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앤디들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린 에밀리들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존중 결핍이다. 조직이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숙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짚어본다. 앤디가 떠난 후의 에밀리는 K직장인의 단면이다. 프라다 뒤, 보이지 않는 근로의 소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20년 만에 다시 만날 악마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직 윤리다.

/mlee236@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음 3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2년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84년생 상사와 서로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49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유희에 넘어가지 마세요. 73년생 애정운이 정말 좋습니다. 85년생 공로를 취하려는 자리가 의지가 솟구칩니다.



50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62년생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74년생 경거망동을 삼가세요. 86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63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75년생 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87년생 재물욕심을 내면 큰 화를 보게 됩니다.



52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학업운이 좋습니다. 76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됩니다. 88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53년생 울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년생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77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89년생 현재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66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78년생 대중교통이용에 주의하세요. 9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55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67년생 소매치기에 유의하세요. 79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1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56년생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됩니다. 68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듭니다. 80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꾸면 매우 길하겠습니. 92년생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57년생 자녀에게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69년생 아직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니 하는 일이 뜬구름 같습니. 93년생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58년생 사소한 근심 거리가 있으나 쉽게 해결됩니다. 70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94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 집니다.



59년생 여행운은 길합니다. 71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3년생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95년생 뒷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 김상회의四季

길상한 반안살

현대는 과거처럼 귀족이나 양반과 같은 사회적 신분체계가 약화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나 벨기에 등 몇몇 나라는 아직도 입헌군주제가 살아 있고 귀족 작위 체계가 유지 중이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유럽의 자긍심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단 근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되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등고시 출신자들인 판·검사나 의대 출신 사위를 보려고 열쇠 3개는 기본으로 준비하여 혼사를 이루는 일도 사회적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일이었다. 조선 말기에도 천민들이 양반 첩을 사서 신분세탁을 했던 일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류층에 대해 동경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고 현재진행형이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곧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고 경제력이 결국은 능력의 척도이니 말이다. 사주학에서 태생이 귀격(貴格)인 사람이 있다. 반안격(攀鞍格)의 사람들이다. 반안이란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전통시대에 말을 탄다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니 출세를 의미했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성공한 것임을 대변한다. 반안살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살(官殺)과 함께 있으면 그 출세운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인 일주를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역시 일주에 드는 반안살을 제일 길하게 친다. 반안살이 년주에 오면 조상덕이 뛰어내고 월주에 오면 부모덕으로 성공할 힘이 강하다. 일주에 오게 되면 본인의 능력으로 대성하게 되고 시주에 오면 자녀의 성공이 확연하다. 다만 기운이 잘못 펼쳐지면 독이 되기도 하니 성공에 대한 집착과 야망으로 흠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7	3		9	1	
			2	9	
		8	7		3
8			7	5	
	6	9			3
9	8		6	1	
	1	4			
	2	3		7	8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2	9	6	8	2	9	7
6	8	9	8	2	7	1	9	2
9	2	7	1	9	2	8	6	8
8	2	7	8	6	9	1	9	
7	1	8	8	9	2	2	6	
9	6	9	2	1	2	7	8	8
2	9	8	9	2	8	6	7	1
1	9	2	2	8	1	9	8	9
8	9	1	6	7	9	8	2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